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09호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및 정비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및 정비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표석 신설 및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및 정비 계획을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및 정비 계획

가. 표석 설치 및 정비 개요 : 신규 설치 3건, 정비 3건

연번	구분	표석명	신규 설치 및 정비 내용	토지 소유자	형태 및 규격(cm)
1	신규 설치	한성사범학교 터	- 설치지 : 종로구 경운동 2-2 인도 - 유적지 : 종로구 경운동 2	국유	형태 : 바닥형 규격 : 60×60×10 재질 : 화강석
2	신규 설치	대왕면 3·1운동 만세시위지	- 설치지 : 강남구 을현동 354 (방죽소공원 내) - 유적지 : 강남구 을현동 300-39	국유	형태 : 스탠드형 규격 : 35×70×24.5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3	신규 설치	역삼리 3·1운동 만세시위지	- 설치지 : 강남구 역삼동 829-20 (역삼 1동 주민센터 내) - 유적지 : 강남구 역삼동 829-20	국유	형태 : 스탠드형 규격 : 35×70×24.5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4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사평 나루터	- 표석 명칭 및 문안 수정, 위치 이전 - 현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386 - 이전 설치지 : 강남구 신사동 488-1	국유	형태 : 강남구 기본형 규격 : 105×71×50 재질 : 화강석
5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압구정 터	- 표석 문안 수정 - 현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456	사유	형태 : 판석형 규격 : 95×88×75 재질 : 화강석
6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청숫골 나루터	- 표석 문안 수정 - 현위치 : 강남구 청담동 107-1	사유	형태 : 강남구 기본형 규격 : 105×71×50 재질 : 화강석

나. 신규 설치 및 정비 사유

○ (신규 설치) 〈한성사범학교 터〉

한성사범학교는 우리나라 소학교 교원양성 교육을 목적으로 1894년 9월 사범학교로 설립되어 1895년 4월 「한성사범학교 관제」가 제정되면서 한성사범학교로 이름을 바꿨음. 1907년 수송동에 교사를 신축하여 옮겼으며 1911년 국권 피탈 후, 일제의 조선교육령 발표와 함께 폐교됨. 사범학교의 설립은 우리나라 교원양성 교육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표석 설치할 역사, 사회문화적 가치가 충분함

○ (신규 설치) 〈대왕면 3·1운동 만세시위지〉

대왕면 3·1운동 만세시위는 1919년 3월 26일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송파리(현재 송파구 송파동 일원) 송파장터에서 시작된 만세시위가 같은 날 저녁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수서리(현재 강남구 율현동 일원)로 이어진 것임. 이시중, 이재순 등 수서리 주민 100여 명은 대왕면사무소에서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하며 「조선독립신문」을 낭독한 후, 조선이 독립하면 부역과 세금 등은 필요 없어진다고 호소하는 등 식민 수탈을 비판함. 대왕면 3·1운동 만세시위는 송파리, 수서리 주민이 연합한 오늘날의 강남구 일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만세 운동으로 표석을 설치할 역사적 가치가 충분함

○ (신규 설치) 〈역삼리 3·1운동 만세시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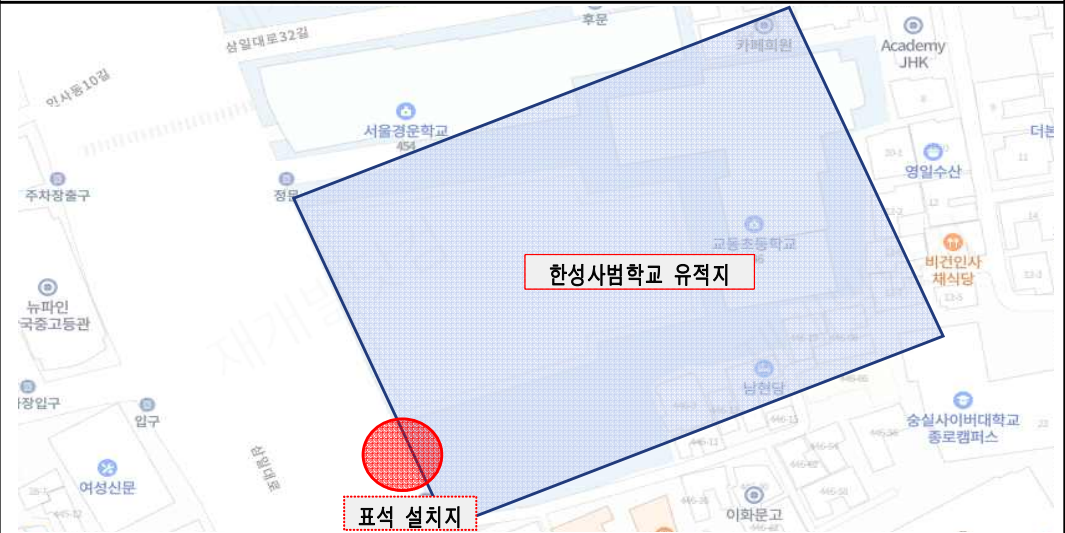
역삼리 3·1운동 만세시위는 1919년 3월 28일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역삼리(현재 강남구 역삼동 일원) 일대에서 주민이 전개한 3·1운동. 역삼리와 양재리 일대의 비옥한 농지는 본래 주민들의 터전이었으나, 토지 조사 사업 이후 국유지로 대거 편입되며 많은 주민이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함. 이에 이중인(건국포장) 등 역삼리 주민 100여 명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횃불을 밝히며 독립 만세를 외쳤으며 이는 식민 수탈에 저항하고 독립 의지를 밝힌 만세 운동으로서 표석을 설치할 역사적 가치가 충분함

○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사평 나루터〉, 〈압구정 터〉, 〈청숫골 나루터〉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의 역사문화 가치 발굴 및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역사문화유적 표석을 설치·관리함. 이 가운데 〈사평 나루터〉, 〈압구정 터〉, 〈청숫골 나루터〉는 서울의 역사·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중요 유적이므로 그 가치와 유적 원위치 등을 재검토하여 서울시 역사문화유적 표석으로 정비·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세부 설치 계획

1 [신규 설치] <한성사범학교 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한성사범학교 漢城師範學校址 Hanseong Normal School Site
문 안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학교 교원 양성 기관인 사범학교와 그 부속 소학교가 있던 자리로, 1894년 9월 18일에 창설되었다. 이듬해에 관제가 제정되면서 한성사범학교가 되었으며, 1907년 교사를 따로 신축하여 학교를 수송동으로 옮겼다. 국권 피탈 직후인 1911년 11월에 폐지되었다.
설치 위치 및 형태	
	
 	
- 설치지 : 종로구 경운동 2-2 인도(구유지) - 유적지 : 종로구 경운동 2(현재 서울교동초등학교)	- 형태 : 바닥형 - 규격 : 60(W)×60(H)×10(D)cm - 재질 : 씨블랙 (화강석)

② [신규 설치] <대왕면 3·1운동 만세시위지>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대왕면 3·1운동 만세시위지 大旺面三一運動萬歲示威址 March 1st Movement Site in Daewang-myeon
문 안	1919년 광주군 대왕면 3·1만세시위가 일어난 곳이다. 3월 26일 저녁, 이시종, 이재순 등 수서리 주민 100여 명은 대왕면사무소에서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조선독립신문」을 낭독한 후, 조선이 독립하면 부역과 세금 등은 필요 없어진다고 식민 수탈을 비판했다. 송파리, 수서리 주민이 연합한 대왕면 3·1운동은 오늘날의 강남구 일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만세 운동이다.

설치 위치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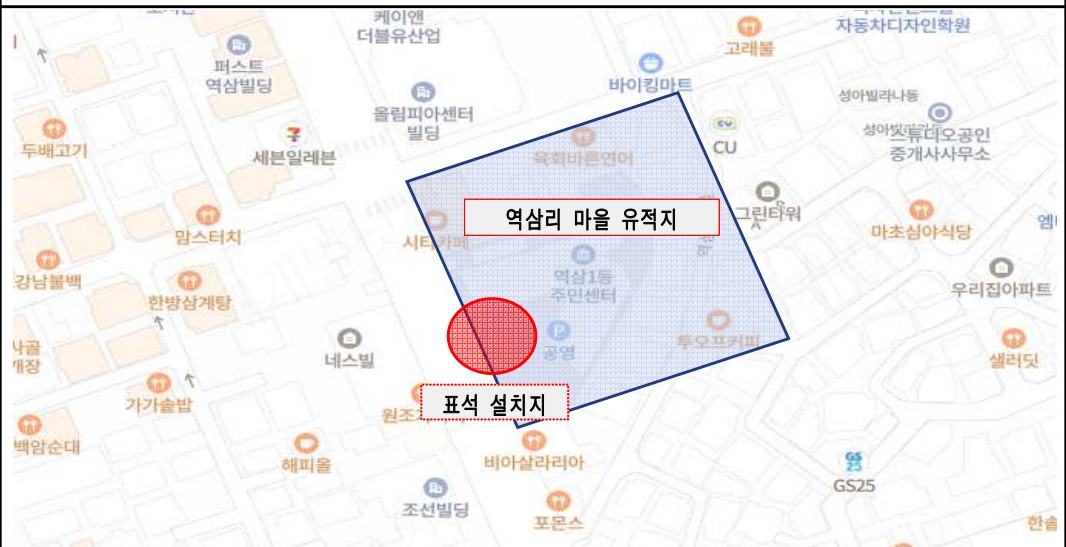
- 설치지 : 강남구 을현동 354(방죽소공원 내, 구유지)
- 유적지 : 강남구 을현동 300-39

- 형태 : 스탠드형
- 규격 : 35(W) × 70(H) × 24.5(D)cm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③ [신규 설치] <역삼리 3·1운동 만세시위지>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역삼리 3·1운동 만세시위지 驛三里三一運動萬歲示威址 March 1st Movement Site in Yeoksam-ri
문 안	1919년 광주군 연주면 역삼리 주민들이 3·1운동을 전개한 곳이다. 역삼리와 양재리 일대의 비옥한 농지는 본래 주민들의 터전이었으나, 토지 조사 사업 이후 국유지로 대거 편입되며 많은 주민이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3월 28일 이종인 등 역삼리 주민 100여 명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헛불을 밝히며 독립 만세를 외쳤다. 역삼리 3·1운동은 식민 수탈에 저항하고 독립 의지를 밝힌 만세 운동이었다.

설치 위치 및 형태



- 설치지 : 강남구 역삼동 829-20(역삼1동 주민센터 내, 구유지)
- 유적지 : 강남구 역삼동 829-20

- 형태 : 스탠드형
- 규격 : 35(W)×70(H)
×24.5(D)cm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④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사평 나루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칭	수정 전	새말 나루터
	수정 후	사평 나루터 沙平渡址 Sapyeong Quay Site
문안	수정 전	조선 시대에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새말(新村)로 불리던 이곳은 한남동 한강 나루터와 이어지는 나루터가 있던 곳으로 상업이 성행했던 곳이며, 말죽거리 판교를 지나 남부 지방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던 곳임.
	수정 후	사평 나루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강을 건너 용산구 한남동과 오가도록 이어주던 나루이다. 조선 시대에는 한양과 충청도, 경상도를 잇던 영남대로(嶺南大路)의 일부였으며, 15대 장시의 하나인 사평장(沙平場)과 숙박 시설인 사평원(沙平院)이 설치될 정도로 이용자가 많은 교통의 요지였다. 1969년 한남대교가 개통되면서 나루의 기능을 잃었다.
이전 설치 위치		
	현재 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386 이전 설치지 : 강남구 신사동 488-1(국유지)	

⑤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압구정 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칭	수정 전	압구정터 狎鷗亭址
	수정 후	압구정 터 狎鷗亭址 Apgujeong Pavilion Site
문안	수정 전	조선조 세조(世祖)때부터 성종(成宗)때까지 영의정을 지낸 權臣 한명회(韓明澮)가 그의 號를 따서 지은 狎鷗亭이라는 정자가 있던 명소.
	수정 후	압구정은 조선 시대 권신인 한명회(韓明澮, 1415~1487)가 한강 변에 세운 정자이다. 한양 근교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많은 문인과 중국 사신이 이곳을 구경하고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겼다. 경치가 빼어나 압구정을 묘사한 문학 작품과 그림이 많이 남아 있으며, 강남구 압구정동 동명의 유래가 되었다.

⑥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청숫골 나루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칭	수정 전	청숫골 나루터
	수정 후	청숫골 나루터 淸潭渡址 Cheongsutgol Quay Site
문안	수정 전	조선시대 이후 영동개발 이전까지 한강을 따라 강원도로 오고 가는 배가 쉬었다 가는 나루터로 청숫골 사람들의 고기잡이 배를 띄우는 선착장 역할도 하였던 곳이며, 농산물을 강북으로 수송할 때도 이용하였던 곳임.
	수정 후	청숫골 나루는 청담동과 독섬 사이의 한강을 건너던 나루로, 청담동에 있어 청담 나루로도 불렸다. 조선 시대에는 도성에서 봉은사(奉恩寺)를 오가는 유람객과 참배객이 많이 이용했으며, 강남 개발 전에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일대에서 재배한 채소를 이곳에서 배에 실어 서울 시내로 날랐다. 1973년 영동대교가 개통되면서 나루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가. 제출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① 전화 : (02) 2133-2621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한국프레스센터) 4층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라.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표식 설치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대 상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 화 번 호	
	주 소			
의견제출 내용				

「표석 신설 및 정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